

“동구 선거구, 북구와 묶어 재조정해야”

광주시 남구, 선거구 확정안 원탁 토론회서 주장
“동·남구 통합은 지리적·역사적 요소 반영 안돼”

광주시 남구가 10일 동구와 남구를 한 선거구로 묶는 선거구 확정안을 놓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좋은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박용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좌장을 맡고 김명식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주제 발표했다.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강렬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조인형 창조

경제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주민대표 최석현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명식 교수는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는 인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생활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동·남구통합안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주시민 대다수가 동구와 북구를 하나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광주전이라는 지형·지세의 문제, 향후

행정구역개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북구와 동구를 묶어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구와 북구의 선거구를 합치는 안도 문제는 있다.
동구가 북구(북구갑, 북구을) 선거구와 합쳐져 3개의 선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상한선인 55만7천890명을 넘어야 하지만 동구와 북구의 인구를 합산하면 54만8천108명으로 선거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구를 인구가 29만6천102명으로 선거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차피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구를 지역의 일부를 북구갑으로 조정하고, 다시 북구갑 지역의 일부를

동구와 한데 묶어 선거구를 확정하면 선거구 하한선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자치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에 ‘동구를 북구와 묶어 3석을 유지한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만명 수준의 동구에 2~3만여명 수준의 일부 지역구 인구를 포함시키는 남구가 주도에 펼친 토론회 성격 탓에 동·남구 통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로 쏟아졌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예산 598억 전액 삭감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59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어린이집·유치원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나마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광주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은 전날 광주시의회 5층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시베리안 호랑이 “눈이 좋아요” 10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시베리안 호랑이 공원에서 호랑이들이 눈을 맞고 있다. 이 공원은 1986년에 세워져 세계 가장 큰 호랑이 종인 시베리안 호랑이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공원에는 1000여 마리 호랑이가 있다. /연합뉴스

DJ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

영·호남 대학생 10명에 상생 장학금

표 의원 등이 출연한 가운데 ‘진짜 평화, 가짜 평화, 2015년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앞서 이날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회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서 전남과 경북 대학생 각각 5명에게 영·호남 상생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영·호남 상생 장학생 선정 및 수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서화합과 인권보호, 평화정착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미래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가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9월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영·호남 청년인재의 공동 육성을 위해 각각 1억원을 영·호남 상생 장학금으로 김대중평화센터에 기탁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 논란

민간개발 아파트 부지와 겹쳐 주민들 반발

전남개발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돼온 민간개발부지와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민간사업자는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이미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토지를 강제수용해 택지로 개발한 뒤 되팔아 쉽게 수익을 얻으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광 및 기존 개발사업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서두르면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 11월 20일 여수시 죽림지구 112만6000여㎡의 면적을 택지로 개발에 분양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안을 승인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남도의회 상임위 승인을 거쳐야하는 규정에 의해 내년 초 승인을 받고, 2019년 착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전남개발공사의 신규 사업부지 내에 수년 전부터 민간건설업체가 부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가 포함되면서 비롯됐다. 지난 2009년 죽림지구 내 8만여㎡의 면적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죽림조합주택은 1차로 4만5500여㎡에 대해 지난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이어 2차로 3만3000여㎡에 59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2차 부지가 전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부지와 겹친 것이다. 조만간 여수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면적이 넓고 절차도 복잡해 개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토지소유자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죽림조합주택 관계자는 “갑자기 두 달 전부터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한다고 계획을 내놓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해당사자인 조합, 조합원 등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민간개발이 추진돼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강조했다. 죽림조합주택 측은 신규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수시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물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검토한 결과 여수 죽림지구 개발사업이 부상했고, 지난 10월 중순 여수시의 요청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남도의회 상임위의 심의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지난 11월 초 신규사업을 결정해 이사회에 상정했으며, 그 전부터 구두로 여수시와 협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 측은 “해당 부지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공·사립 예산 차별 지원”

문상필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공·사립간 예산을 차별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10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교육청은 공립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무상교과서 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



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라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 등 총 624개교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SMILE

뒤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